

리서치팀

☎ 82-2-3774-0451

## 1. 통화전망

### (1) 달러/원(선물)

예상 레인지: 1,085원~1,100원

방향성: 강보합

금주 환율은 미국 추가부양책과 관련한 불확실성과 14일~15일 FOMC 회의에서 자산매입 변경과 관련한 발언 대기, 국내 코로나 19의 급격한 확산세, 뉴욕증시 변동성 확대되는 가운데 위험선호심리 후퇴되어 강보합 전망. 다만 지난주 승인된 화이자의 백신이 위원회 권고를 거쳐 14일 첫 접종이 예상되고, 캐나다에서도 영국에 이어 백신 접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 점이 글로벌 달러 약세로 환율 상단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 또한 최근 6.5위안까지 내려온 위안화의 강세 폭이 제한되고 있는 점과 상단에서의 수출업체 네고 물량은 상단을 제한할 것으로 보임.

### (2) 유로/달러(선물)

예상 레인지: 1.205~1.225USD

방향성: 강보합

금주 유로/달러는 지속되고 있는 미국 추가 부양책 협상, FOMC 통화정책회의를 대기에 따른 달러화 약세 우위 속 강보합 전망. 영국과 EU간 미래관계에 대한 협상이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되며 파운드화는 노딜 브렉시트 우려에 따른 낙폭을 되돌림. 영국과 EU간 무역협상에서 노딜 브렉시트 우려가 완화된 모습. 또한 연내 타결 가능성을 높여왔던 미국 추가부양책은 18일 단기 예산안 시한 이후 재 논의 될 것으로 보이며 미국 부양책 협상 경과가 극단적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달러화 약세 전환으로 유로화 강보합 전망

### (3) 엔/달러(선물)

예상 레인지: 0.95550~0.96550USD

방향성: 강보합

금주 엔/달러는 백신에 대한 기대감 희석, 브렉시트와 미국 부양책 논의 지연, 증가하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리스프오프 심리에 강보합 전망. 최근 미국 국채 수익률은 금융시장 이슈들의 불확실성과 15~16일 예정된 FOMC회의를 앞두고 하향 안정화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음. FOMC에서 자산매입규모나 구성변화 가능성은 낮지만, 경제전망보고서에서 전망의 불확실성을 가늠할 수 있는 차트들이 제공될 수 있는 점들은 국채금리를 끌어내리고 있음. 이에 엔화는 미국채 수익률 하향 안정화에 강보합권 등락을 예상

## 2. 지수전망

### (1) S&P500(선물)

예상 레인지: 3,450~3,800 pt

방향성: 약보합

금주 뉴욕증시는 미국 부양책 타결 여부와 미국 소비 및 제조업 지표를 소화하며 약보합 전망. 미국 추가 부양책은 연내 타결이 가격에 반영된 만큼 협상안 합의가 지연될수록 시장의 불확실성은 증가할 것으로 보임. 오는 15~16일 이틀간 진행될 올해 마지막 FOMC회의에서는 채권매입 정책과 관련한 변화가 있을 지 주시할 필요가 있음. 이번 회의에서 채권 매입 규모를 늘리거나 듀레이션 확대를 통한 채권 만기 장기화 가능성이 우위를 보이고 있음. 금주 금요일은 선물/옵션 만기가 겹치는 네 마녀의 날이자 종가 기준 테슬라가 S&P500지수에 편입되는 날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점 유의.

## 3. 상품전망

### (1) WTI(선물)

예상 레인지: 44~48.00 USD

방향성: 약보합

금주 WTI는 백신 개발 소식으로 변동성이 높아지겠으나, 백신 보급과 집단 면역체계가 생기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OPEC+가 감산 규모를 완화할 가능성이 높아진 점을 감안할 때 약보합권 등락 전망. 백신 개발로 원유수요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으나 원유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태. 백신의 대량 공급 이후 코로나 19 이전 수준으로 생활이 회복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기 때문. 이에 더해 OPEC+의 원유공급 확대 리스크도 유가 상단을 제한하는 요인. 2021년 1월부터 OPEC+의 원유공급량은 일일 50만 배럴 늘어날 계획으로, OPEC+는 원유생산규모를 늘리기 위해 향후 5년간 1220억 투자 규모를 확대할 예정

### (2) 골드/실버(선물)

예상 레인지: 1,820~1,885USD

예상 레인지: 22.00~25.00 USD

방향성: 강보합

금주 금 가격은 FOMC, BOE 통화정책 회의결과를 주시하며 강보합권 등락을 전망. 15일~16일 예정된 FOMC회의에서 자산매입 규모가 변경되지 않고, 미국 추가부양책 협상이 노이즈 없이 합의될 경우 달러화 약세 전환으로 금 가격을 지지할 것으로 보임. 영국과 EU간 무역관계 협상이 12월 13일 시한내 타결을 못했으나 연말까지 협상을 이어가기로 결정. 현재 공정경쟁 환경과 어업권, 분쟁해결 구조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금융시장에 불확실한 요인이 산재한 점도 위험자산 선호 회피에 따른 금가격 상승 요인.

본 자료는 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가 되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당사 고객들에게 배포되는 자료로서 본 조사자료의 내용은 당사의 리서치센터에서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정보를 이용하여 작성한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투자를 하여야 하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파생상품은 높은 가격변동성으로 인해 단기간에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손실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www.futures.co.kr](http://www.futures.co.kr)) 에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